



# 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644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8년 12월 28일 (음력 11월 22일) 금요일

## 광주·전남 고교 공동학군제 도입 어려울 듯

광주·전남지역 학생들의 고교 진학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공동학군제 도입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장석웅 광주시교육감과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은 27일 고교 공동학군제에 대해 엇갈린 입장을 표명했다.

장석웅 광주시교육감은 "전남도교육청에서 지난 2016년에 화순을 공동학군제로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으나 구체적인 논의가 이어가지는 못했다"며 "공동학군제 도입은 앞으로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장 교육감은 "공동학군제가 광주와

장석웅 시교육감 "상생 교육발전에 도움 되지 않아요"

장석웅 도교육감, 학생유출 우려 반대 "학교교육 내실화"

전남의 상생 교육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광주와 인접한 나주, 화순, 담양, 장성 등은 전남도교육청과 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석웅 교육감이 공동학군제 도입에 중립적인 입장인 반면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은

학생 유출 우려로 반대했다.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은 "공동학군제는 학생들의 선택권 확대라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학생들이 어느 한쪽으로 유출될 우려가 있어 원칙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장 교육감은 "전남의 교육력을 높여 학부

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학교에 맡길 수 있도록 학교교육에 내실화를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광주와 전남은 광주광역시와 분리된 후 1987년부터 1992년까지 고교 공동학군제를 운영했으나 전남지역 학생들이 광주로 대거 유출되면서 1993년에 중단했다.

하지만 광주와 인접한 화순, 나주, 장성, 담양 등 전남지역 일부 학부모들은 학생들의 선택권이 침해받는다며 공동학군제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김정환·조인호 기자



### 상식 파괴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26일 같은 당 김무성 의원의 인터뷰 내용을 지적하며 당 차원에서 논의해 줄 것을 요구했다. 친박계 홍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중진의원 연합회에서 김 의원이 얼마 전 모 집지 인터뷰에서 친박당을 없애버릴 수도 있었다는 말을 했다며 "계파별언을 그냥 넘어가도 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이 인터뷰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나를 신하처럼 대접하고 있는데 대통령을 무시나 하고 부른 김 의원이 언제 대통령 대접을 했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말하려면 수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지만 말하지 않았다"며 "김 의원의 발언이 우리 당에 도움이 되는 거냐. 이 문제에 대해서 당을 이끌어가는 비대통령직이 목말라 해달라"고 요구했다.

관련 인사들의 속내를 상상해 본다.

신봉우 기자·자료사진=뉴시스

## '오너 구속' 에어필립, 투자유치·매각 나서

모기업 지원 중단...신규 면허 취득시 일자리 창출·무안공항 활성화 기여

오너리스크 속에 경영에 빨간불이 켜진 채 저비용항공사(LCC·Low Cost Carrier) 신규 면허 취득에 나선 (주)에어필립이 결국 자력경쟁을 위한 투자유치와 매각의 갈림길로 들어섰다.

27일 광주 지역 경제계에 따르면 호남기반 항공사 에어필립은 대표(사)가 불법 장의 주식 거래 혐의로 지난해 20일 구속된 이후 금융업체인 모(母)기업 필립에셋의 직접 지원이 끊기면서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현재 모기업 필립에셋이 폐업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13일 구속된 임일석 회장이 대표(사) 직에서 물러나면서 에어필립은 필립그룹에서 완전히 분리돼 홀로 서기에 나섰다.

임직원들은 손익분기점 대비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 이달부터 이뤄지는 '급여 20% 삭감 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 같은 경영구조 약화는 석 달 남은 LCC 신규항공사 선정에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에어필립 측은 외부 투자유치를 통해 경영위기를 돌파한다는 계획이다.

에어필립 관계자는 "LCC 신규 취득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요청한 자본금 150억원 조건은 충족한 상태라 끝까지 추진한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투자유치는 경영권 포기를 전제로 하지 않고 앞으로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자본 유치 활동으로 바 달라"고 말했다.

신봉우 기자



에어필립 측은 모 대기업 계열사가 에어필립 인수를 위해 800여원을 제시했다고 알려졌지만 LCC 신규 면허를 취득할 경우 매각가는 더 올라갈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에어필립 매각은 전국 5개 지점에 근무 중인 300여명에 달하는 임직원들의 고용승계 문제가 우선 해결돼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양으로 전망되고 있다.

에어필립은 경영위기 속에서도 지난 23일 4호기를 추가로 도입했다. 내년에 목표한 LCC 면허를 신규 취득하면 5호기(200인승 B737-800)를 3월 이전까지 도입할 예정이다.

에어필립 측은 LCC 신규 면허를 취득할 경우 일자리 창출과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여기서 주저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에어필립 관계자는 "자본유치를 위해 자체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전남도와 무안군도 일자리 창출과 무안공항 활성화 측면에서 관심을 가져 달라"고 요청했다.

김무성

대통령을 가시나라 부른 사람 이 누군데...

피장 파장 아닌가

김무성



## 담양군, 연말 지역인재위한 기탁 줄이어

김찬란 빛가람에너지 대표 등 장학금 맡겨...지역사회 훈훈

연말연시를 맞아 지역 내 각계각층에서 미래 지역 발전의 견인차가 될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기탁 행렬이 줄을 이고 있어 지역사회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담양군에 따르면, 지난 26일 지역의 인재육성과 교육발전을 위해 써달라며 추성로 1206호(대표 고영선) 300만원, 담양군 파크골프협회(회장 이상엽) 100만원, 빛가람에너지(대표 김찬란·사진 우측)에서 100만원을 미래전망장학금으로 기탁해왔다.

앞서 지난 21일에는 (주)하우원(대표 홍국정)에서 3백만원을 메타로드 영농조합법인(대표 추창호)에서 50만원을, 24일에는 박내과의원(원장 박용현)에서 1백만원

을 기탁해 왔다. 특히 (주)하우원과 박내과의원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장학금을 기탁하며 꾸준한 지역사랑을 실천하고 있어 귀감이 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역민과 향우, 기관 및 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의 참여 덕분에 지금까지 83억여 원의 기금을 조성해 총 2,600여 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었다"며 "내년에도 장학사업과 지역 학생의 학력향상과 인문학적 소양 함양 및 다양한 특기적성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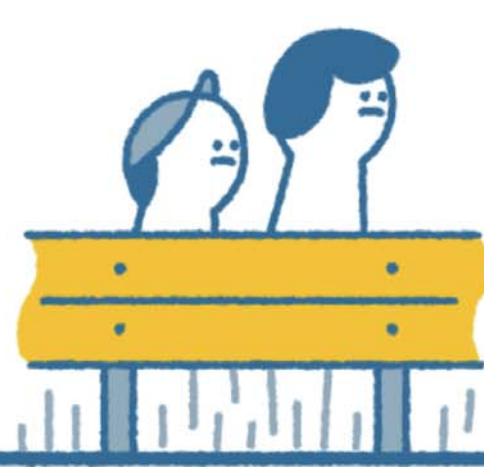
신정 연휴로 다음호 3일자 발행합니다

사람이 우선의 스마트 고속도로

### 고속도로에서 사고나 고장이 나면



1 비상등 켜고 트렁크 열고



2 가드레일 밖 우선대피



3 사고신고 1588-2504

## 사람이 우선입니다

ex 한국도로공사